

제14호·2016년 6월 8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실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플류이슈

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(TASED,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) 연해주 편

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(이하 선도개발구역) 목적 및 현황

-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, 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, 세제혜택,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(FEZ: Free Economic Zone) 및 경제특구 등과 유사함¹⁾
-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2월 14개 후보지역 중 3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선정됨
 - 이후 2015년 4월 추가로 6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, 계속해서 신규지역이 선정되고 있음
 - 현재까지는 연해주에는 나데진스카야, 미하일롭스키, 볼쇼이카멘(신규) 선도개발구역이 선정되었으며, 극동러시아 연방관구 중 가장 많은 선도개발구역이 선정됨

선도개발구역 현황

연방주체	구역명칭	면적 (단위: ha)	특화분야	투자소요액 (단위: 10억 루블)		고용 창출
				민간자본	정부예산	
연해주	나데진스카야	807	경공업, 식품, 물류	6.7	3.2	1,630
	미하일롭스키	3,151	농축산업, 곡물생산	39	4.4	2,401
	볼쇼이카멘	-	조선업	139.9	3.2	5,554
하바롭스크주	하바롭스크	716	산업, 물류	28.5	1.8	3,095
	콤소몰스크	327	산업(항공기제작)	15.2	1.2	2,700
아무르주	프리아무르스카야	857.3	산업, 물류	128.9	-	1,530
	벨로그orsk	702.3	농업	1.5	0.09	275
캄차트카주	캄차트카	1,276	산업, 관광	28.1	8.3	2,918
추코트카	베링굽스키	5,960천	광업	8	-	450
사하공화국	칸갈라시	16.9	산업	1.1	0.2	350
사할린주	유즈나야	-	농업	6	1.5*	450
	고르니 보즈두흐	-	관광	6	10*	725

* 지방정부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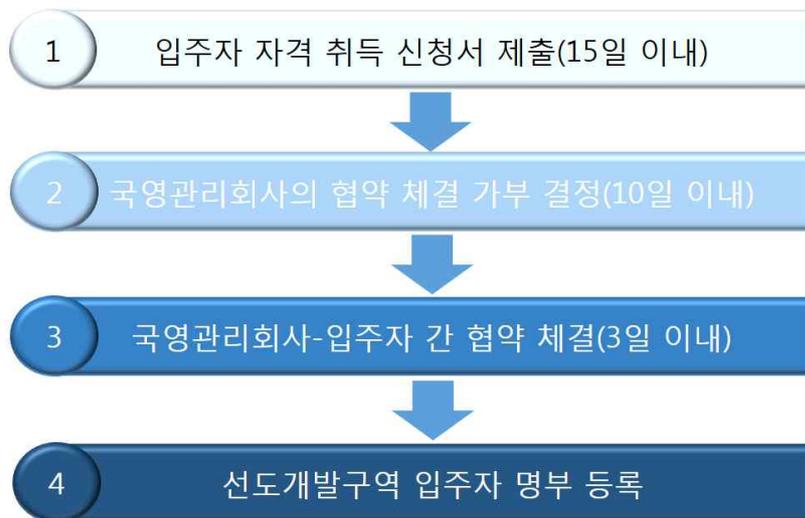
자료: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, '2015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'(2015), p.7, http://minvostokrazvitia.ru/press-center/news_minvostok/?ELEMENT_ID=3962(검색일 : 2016년 6월 1일)

1)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'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(TASED,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) 아무르주 편', p.2

선도개발구역 입주자 지위 취득 절차

- 선도개발구역의 입주자 지위 취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됨
 - 입주자 자격 취득 신청서 제출(15일 이내)
 - 국영관리회사의 협약 체결 가부 결정(10일 이내)
 - 국영관리회사-입주자 간 협약 체결(3일 이내)
 - 선도개발구역 입주자 명부 등록

선도개발구역 입주절차



자료: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, '2015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'(2015), p.10

- 선도개발구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제활동 유형, 부지 면적, 전력, 냉·온수, 가스 등 필요 인프라, 협약 체결 기간 등의 정보를 기입,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국영관리 회사에 제출해야 함
 - 15일 이내 국영관리회사는 입주 신청자에게 협약 체결 관련 가부결정 사항을 10일 이내 통보해야 함
 - 국영관리회사와 입주예정기업간의 협약이 체결된 후 국영관리회사는 3일 이내 선도개발구역 입주자 명부에 입주예정기업을 등록, 입주자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해야함
- 선도개발구역 입주자 증서를 발급 받았어도 2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,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설계문서 및 엔지니어링 조사 결과 등을 미제출한 경우, 국영관리회사와 협약 시 정한 규모 및 기한 내 자본금 투자가 실시되지 않은 등의 경우에 입주자 지위가 상실됨



미하일롭스키(Mikhailovsky) 선도개발구역 현황

- 러시아 정부는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은 농축산업 및 식품산업 특화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며,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,886ha로 기업이 입주 가능한 면적은 244ha임
-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110km,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에서 120km, 미하일로프카 화물열차역에서 5~20km, A-182 연방도로와 1~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함
-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에 필요한 도로, 전력, 상하수도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정부는 약 45억 루블을 투자하고자 함
- 특히 전체 투자금 비중에서 도로, 전력, 하수도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중이 크며, 약 11~12억 루블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

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

입주기업	투자사업	총투자금 (단위: 백만 루블)	건설기간	고용창출
RusAgro-Primorye OSJC	돼지사육, 도축장, 사료공장	1,876	2015-2017	1,201명
Mercy trade OJSC	돼지사육 단지	2,027	2015-2017	1,200명

자료: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, '2015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개요'(2015), p.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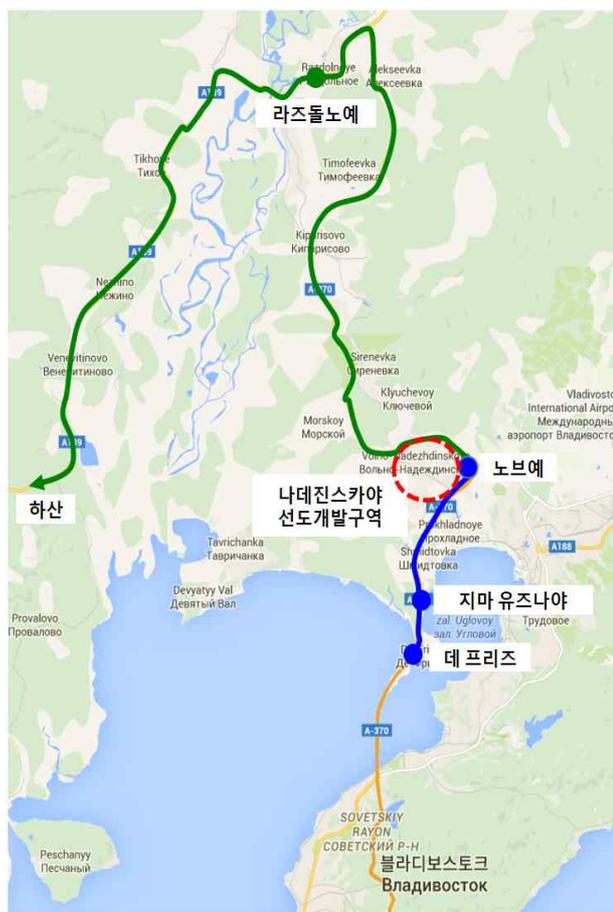
나데진스카야(Nadezhdinskaya) 선도개발구역 현황

-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북부에 위치한 840ha의 나데진스키 지역을 교통물류산업 및 식품, 제조산업 특화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
-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807ha로 이 중 약 354ha가 입주 가능한 면적임
-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의 공항(32km) 및 항만(27km), 나데진스카야 철도역(1.7km) 등 주요 교통인프라와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강점을 가짐
- 현재까지 나데진스키 선도개발구역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은 총 3개 업체로 'Inkom-DV JSC', 'Primorsky Konditer JSC', 'Nevada-Vostok JSC'가 입주를 신청함
- 러시아 정부는 나데진스키 선도개발구역에 새로운 교통물류단지인 '연해주 남부터미널'을 개

발하고자 하며, 입주기업으로 'Inkom-DV JSC'가 선정됨

- 'Inkom-DV JSC'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1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임
- 새로운 교통·물류단지인 '연해주 남부터미널'이 건립되면 연간 90만개의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150만 톤이 처리가 가능해짐²⁾
- 또한 2016년 4월,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도로 인프라와 관련하여 약 50억 루블을 더 투자하기로 결정함
- '연해주 남부터미널은 2017년 연말 완공될 예정이며 지마 유즈나야(Zima Yuzhnaya)-라즈돌노예(Razdolnoye)-하산, 노브예(Novy)-지마 유즈나야(Zima Yuzhnaya)-데 프리즈(De-Friz) 구간의 고속도로 연결될 예정임
- '연해주 남부터미널' 건립과 함께 구축될 도로 인프라 구간 중 '데 프리즈-라즈돌노예' 구간은 국제교통회랑인 '프리모리예-1'과 동일한 구간임
- 이는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이 활성화 될 시 '프리모리예-1'을 통해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루트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

연해주 남부터미널 고속도로



자료 : PrimaMedia.ru, <http://primamedia.ru/news/economics/22.04.2016/502224/bolee-5-mlrd-rublej-investiruyut-v-primore-pervie-shest-rezidentov-tor-nad.html>(검색일 : 2016년 6월 2일), KMI 재구성

자료: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, '2015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'(2015)

김은미 연구원

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

2) OTB, http://otvprim.ru/society/primorskij-kraj_20.11.2015_30721_inkom-dv-logistik-investiruet-v-tor-nadezhinskaja-8-5-milliardov-rublej.html(검색일: 2016년 6월 1일)

3) PrimaMedia.ru, <http://primamedia.ru/news/economics/22.04.2016/502224/bolee-5-mlrd-rublej-investiruyut-v-primore-pervie-shest-rezidentov-tor-nad.html>(검색일 : 2016년 6월 1일)

플류이슈

트루트네프 부총리, 극동-싱가포르 항만협력 가능성 시사

-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프가 최근 이루어진 싱가포르 방문에서 극동과 싱가포르 간의 항만 협력에 대해 논의함
 - 싱가포르 항만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측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고 추후 자유항의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국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힘
 - 또한 이 면담에서는 항만업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성을 가진 싱가포르 항만공사에서 항만협력을 위해 자유항 대표단을 파견하는 내용과 협력 사업성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과 협력증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
- 러시아측은 싱가포르 대표단의 블라디보스토크 공식 초청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함
 -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싱가포르 항만공사측이 자유항 이외의 극동지역의 기타 항만사업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으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거듭 밝힘
 - 또한 싱가포르와의 항만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, 싱가포르 항만공사와의 투자 잠재성 판단여부 조사를 상세히 진행하기 위해 자유항의 모든 단계별 개발 진행사항과 비전에 대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함
 - 현재 러시아-싱가포르 경제협력이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터미널 건설을 위한 협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의 일환으로 양국의 항만기술산업 협력이 더욱 공고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함

자료: <http://tass.ru/transport/3300713>(검색일: 2016년 5월 20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

수마(Summa)그룹, 국제물류회랑 프리모리에-2 사업성 평가 완료

- 5.25일 개최되는 극동바이칼지역 개발위원회 기관급 회의에서 수마 그룹이 국제물류회랑 프리모리에-2(훈춘-자루비노 구간)의 재정모델 및 사업타당성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
- 수마 그룹은 재정모델에 포함되는 연구대상이 투자대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 및 항로, 에너지항만인프라, 수로 관개 사업 등 모든 종류의 사업 분야를 아울러 국제물류회랑의 모든 사업구성요소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강조함
- 수마 그룹의 국제물류회랑 사업평가총액은 약 2천억 루블에 달함(미화 31억 달러)
- 총 사업평가총액 중 약 1200억 루블은 곡물, 컨테이너, 벙커링 터미널과 내륙항 출자 등과 같은 민간사업 투자부문으로 진행 될 것이고 그 외 800억 루블은 정부사업부문으로 배정됨
- 당사의 이번평가가 올해 4월 맥킨지CIS⁴⁾에 선행되었던 투자평가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보충, 더욱 세분화한데서 오는 금액 차이라고 밝힘
- 수마 그룹은 국제물류회랑사업 뿐만 아니라 자루비노항만 개발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그 계획으로 자루비노항에 1단계 개발에서 천만 톤 곡물터미널 건설과 70만 TEU처리, 2단계에서는 2천 3백만 톤 곡물터미널 확장건설, 18만 TEU 처리 목표를 가지고 자루비노 터미널 복합단지를 건설 할 예정임
- 수마 그룹은 국제물류회랑을 통한 물류흐름이 러시아와 중국 측 화물 발주사의 상호협약을 더욱 우호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함
- 러-중 통과물류의 90%는 중국 동북3성에서 중국 남부로 보내지는 중국 국내 물량이며, 나머지 10%는 중국에서 수출입 되는 화물로 2백만 톤의 곡물이 자루비노항 터미널에 저장 가능할 것으로 밝힘

자료: <http://tass.ru/transport/3311577>(검색일: 2016년 5월 25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4) 올해 4월 극동개발부의 입찰을 통해 맥킨지사가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를 하였고 타당성평가비로 1,700억 루블이 책정됨